

# 『醫方類聚·諸虛門』을 통해 본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의 虛勞의 역사

정지훈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 The Historical Study of Consumptive Diseases in East Asian Medicine through the Chapter of All Deficiency in 『Euibangyoochui』

JiHun Jung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 Ji University*

All Deficiency section (諸虛門) in Euibangyoochui (醫方類聚), fills volumes 143-154 of Euibangyoochui's 266 volumes. In it, diverse and meaningful concepts such as Consumptive Disease (虛勞) and Fatigue Due to Overexertion (勞倦) are introduced to describe deficiency-oriented diseases.

Before the 10th century, there a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muscle exhaustion, pulse exhaustion, flush exhaustion, Qi exhaustion, essence exhaustion, bone exhaustion, and prescribing treatments for treating diseases corresponding to each exhaustion.

As medical knowledge was integrated through the medical books compiled by the government, awareness of Consumptive Disease was advanced to clarify the concept of pathways.

The Confucian doctors have led to changes in recognition of the cause of the Consumptive Disease from damage of human factors to an internal problem.

It can be seen that the classification of hurdles has become more diverse just before the outbreak of Euibangyoochui and that they include various diseases.

Key words : Euibangyoochui, Consumptive Disease, East Asia

### I. 서론

의학사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통시적으로 이전 의서를 수집하여 배열함으로써 개념을 정리한 의서는 이러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전기에 나온 『醫方類聚』는 발간 당시 동아시아 의학의 최신지견을 망라하고 동시에 이전 간행된 서적들을 순차적

으로 인용 재배열함으로써 특정 질병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서이다.

의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자, 출판배경, 서지사항 등에 대한 개론적인 연구를 선행해야 하고, 본초, 침구, 방제, 진단 및 각종 잡병 등 세부 주제별로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각각의 연구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각 의서들 간의 관계, 후대에 미친 영향 및 현대적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sup>1)</sup>

한국의학사의 3대의서 중의 하나인 『醫方類聚』와 같은 거대한 분량의 종합의서일 경우 총론적인 연구<sup>2)</sup>와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sup>3)</sup> 등의 선행연구 이후에 최근에는 개별 병

접수 • 2019년 11월 11일 수정 • 2019년 11월 25일 채택 • 2019년 11월 20일  
교신저자 • 정지훈,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033-730-0671 E-mail : albino24@sangji.ac.kr

1) 강연석, 이상섭, 박희수, 이서영. 『醫方類聚·癩癩門』을 통해 본 한의학에서 癩疾의 역사. 한국사학회지. 2011;24(1):111.  
2) 안상우, 김남일. 『醫方類聚』總論의 體制와 引用方式 分析.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22(1):85-106.  
3) 안상우. 『東醫寶鑑』의 '類聚'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00;13(1):59-72.

중이나 치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sup>4)5)6)</sup>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醫方類聚』의 「諸虛門」을 분석하여 15세기까지 동아시아 전통의학 속의 虛勞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醫方類聚』는 당대까지 출간된 동아시아 지역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주제별로 재편집을 하고 있다. 주제별로 재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책들을 출판된 순서에 따라 책제목별로 배치를 하고 있으며, 몇몇 주요 문장을 가져오는 수준이 아니라 중요 부분을 문단째로 옮겨와 『醫方類聚』는 15세기까지 동아시아 의학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sup>7)</sup> 동시에 취사선택 과정에서 당시 조선의 의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의학사상과 지식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虛勞라는 병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어 이후에 끼친 영향과 현대적 의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醫方類聚』에 실린 각각 병증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을 위한 기초연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본론

허로는 한의학에서 오랜 기간 다루어져 왔던 병증으로, 그것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內經』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적에서 발견이 된다.

한의학의 가장 오랜 경전인 『黃帝內經』에서는 “精氣奪則虛”라는 문장으로 虛勞를 정의하고 있다. 精氣가 지나치게 소모되면 虛證이 생긴다는 말로, 예를 들면 병으로 정기가 소모되면 기운이 없어서 말하기조차 싫고 쉽게 피로하며 권태감이 나고 숨결이 약하며 식은땀이 나고 맥이 細하면서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黃帝內經』에서 虛勞에 대하여 정의한 이래로 시대별로 虛勞에 대한 원인 및 질병의 분류, 치법 등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 왔는데, 『醫方類聚·諸虛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에서의 虛勞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대순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醫方類聚·諸虛門』의 구성

『醫方類聚·諸虛門』에 대한 시대적 고찰에 앞서 그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醫方類聚』에는 200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 관련서가 인용되었으며, 당, 송, 원, 명대 초기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 조선 초기까지 고유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어 당시 최고 수준의 의학이 집대성된 의서이다.<sup>8)</sup>

『醫方類聚·諸虛門』은 다른 단원과 마찬가지로 醫論, 處方, 食治, 禁忌, 鍼灸 및 導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락은 다시 저술 시기에 따라 서적별로 주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표 1. 『醫方類聚·諸虛門』의 구성

의론	『巢氏病源』 『聖惠方』 『和劑指南』 『三因方』 『神巧萬全方』 『瑣碎錄』 『簡易方』 『斷病提綱』 『直指方』 『朱氏集驗方』 『嚴氏濟生方』 『嚴氏濟生續方』 『管見大全良方』 『儒門事親』 『十形三療』 『治法雜論』 『宣明論』 『澹寮方』 『衛生寶鑑』 『聖濟總錄』 『拔粹方』 『醫方大成』 『永類鈴方』 『施圓端效方』 『玉機微義』
처방	『金匱方』 『千金方』 『千金翼方』 『千金月令』 『聖惠方』 『四時纂要』 『和劑局方』 『大全本草』 『三因方』 『衛生十全方』 『神巧萬全方』 『助道方』 『是齋醫方』 『簡易方』 『直指方』 『朱氏集驗方』 『嚴氏濟生方』 『嚴氏濟生續方』 『管見大全良方』 『修月魯般經後錄』 『治病百法』 『宣明論』 『御藥院方』 『得效方』 『肘後方』 『澹寮方』 『衛生寶鑑』 『聖濟總錄』 『居家必用』 『拔粹方』 『瑞竹堂方』 『醫方大成』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經驗祕方』 『經驗良方』 『煙霞聖效方』 『壽親養老書』 『施圓端效方』 『神效名方』 『新效方』 『急救仙方』 『玉機微義』 『羅仙活人心』 『壽域神方』 『衛生易簡方』 『金匱鉤玄』 『御醫撮要』
식치	『聖惠方』
금기	『巢氏病源』 『千金方』 『山居四要』
침구	『千金方』
도인	『巢氏病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론 부분에서는 『巢氏病源』 등 25개 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로의 원인, 기전 및 증상을 관찰하고 분류하였다. 허로로 인한 각종 증상을 나열

4) 강연석, 이상섭, 박희수, 이서영. 「『醫方類聚·癩癩門』을 통해 본 한의학에서 癩疾의 역사」. 한국외사학회지. 2011;24(1):111-117.

5) 정지훈, 한봉재, 김동윤. 「『醫方類聚』의 導引圖에 관한 연구」. 한국외사학회지. 2014;27(1):41-50.

6) 정지훈. 「『醫方類聚·五臟門』의 처방분석」. 한국외사학회지. 2018;31(1):105-122.

7)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46.

8)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1.

하는 서적부터 五勞, 六極, 七傷 등으로 허로를 분류하는 서적 및 허로병의 발생과정과 이에 대한 사용 약재 등을 소개하는 서적들도 구성되어 있다.

처방 부분에서는 『金匱方』 등 49개 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로의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의문부분에서 제시한 허로병의 다양한 분류에 따른 각종 탕, 산, 환제를 소개함으로써 허로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제공하는 서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식치 부분에서는 『聖惠方』을 중심으로 五勞와 七傷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음식처방, 허손으로 마르고 쇠약한 것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음식처방, 광물성 약재를 육류와 법제한 음식처방 등 다양한 식치방을 제시하고 있다. 식치에서 특이한 것은 허로를 치료하기 위하여 양, 닭, 돼지, 사슴 등 다양한 육류를 처방의 주재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인데, 허로의 치료에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기 부분에서는 『巢氏病源』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허로 증에 금지해야 할 음식과 술의 폐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巢氏病源』에서는 허로로 인한 陰萎증상의 양생방을 소개하고 있고, 『千金方』에서는 달에 따라서 사람을 허하게 하고, 神氣를 상하게 하는 금지해야 하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山居四要』에서는 ‘술을 많이 먹으면 장위가 부패하고 골수와 근이 상하며, 神이 손상된다.’면서 술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다.

침구 부분에서 『千金方』을 중심으로 다양한 虛勞 증상에 따른 뜸 치료법을 열거하고 있다. 다른 병증에서는 침과 뜸을 모두 고루 사용한 것에 비하여 『諸虛門』에서는 침보다는 뜸을 주된 치료법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주로 신장의 허로와 연관이 있는 남자의 虛勞失精, 莖中痛, 膝痛 등을 소개하면서, 치료법으로 中封, 三陰交, 曲泉 등의 혈자리에 뜸을 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인 부분에서는 『巢氏病源』을 중심으로 하여 허로의 각 증상에 유용한 양생방으로서의 도인법을 서술하고 있다. 허로로 인하여 나타나는 마르고 수척한 증상, 한랭의 증상, 少氣, 裏急, 신체통, 입이 마르는 증상, 무릎이 찬 증상, 음부가 아픈 증상, 음부가 가렵고 습한 증상, 風虛勞 등의 증상에 대한 다양한 도인법을 소개하고 있다. 신체

를 이완시키는 운동법뿐만 아니라 叩齒法, 回津法 등도 도인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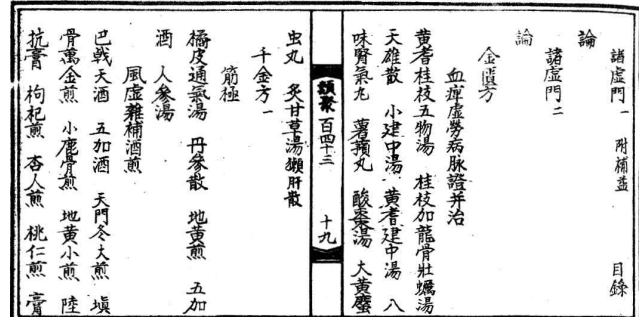


그림 1. 『醫方類聚·諸虛門』(1965년 동양의학대학 발간본)

## 2. 『醫方類聚·諸虛門』을 통하여 살펴본 동아시아에서의 허로에 대한 인식

『醫方類聚·諸虛門』에 인용된 서적들을 시기별<sup>9)</sup>로 100년 단위로 끊어서 분류하고 고찰하여 허로에 대한 인식 및 그 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 1) 10세기 이전의 인식

허로라는 병증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면 『黃帝內經』에서 허로에 대하여 초보적인 언급을 한 이후에 『金匱要略』에서는 虛癆라고도 정의하였다. 『金匱要略』의 ‘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서는 혈비허로에 사용하는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세기에 나온 『巢氏病源』에서는 큰 분류의 구분이 없이 증상만 나열하는 초보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虛勞病諸候’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듯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질병에 대한 분류와 범주를 만드는 모습이 부족한 느낌이다.

7세기 중엽 唐나라 孫思邈이 편찬한 의서인 『千金要方』에서는 허로에 대한 초보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筋極, 脈極, 肉極, 氣極, 精極, 骨極 등 6개의 범주로 허로를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극증에 해당하는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나열하고 있다.

허로의 치료에 대해서는 補腎이라는 부분을 따로 두어

9) 『醫方類聚』의 범례에서는 모든 서적들은 시대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다고 하였으나, 엄밀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醫院. 『醫方類聚 1』.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5.) 예를 들어, 12세기 후반에 간행된 『聖濟總錄』같은 서적은 14세기에 나온 서적들과 나란히 있는데, 이는 재간행된 연도에 따라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초간본의 발간연대가 명확한 경우 『醫方類聚』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초간본의 발간 연도 순서에 맞춰서 서적을 분류하고 서술하였다.

腎을 보하는 처방으로 建中湯, 大建中湯 등 40개의 처방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허하게 하고, 神氣를 상하게 하는 금지해야 하는 음식과 다양한 허로 증상에 따른 뜸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표 2. 10세기 이전 서적의 허로 분류

『巢氏病源』	의론 : 虛勞病諸候(羸瘦, 三焦不調, 客熱, 熱, 無子, 傷筋骨, 不得眠, 大病後不得眠, 病後虛腫, 脈結, 汗, 大病後虛汗, 風虛汗出, 舌腫, 手足皮剝, 煩悶, 嘔逆唾血, 嘔血, 鼻衄, 吐利, 祕澁, 小便利, 溢精見聞精出, 喜夢, 精血出, 陰冷, 髀樞痛, 陰痛, 陰疝腫縮)
	금기 : 虛勞陰萎候
	도인 : 虛勞候(羸瘦, 寒冷, 少氣, 裏急, 體痛, 口乾, 膝冷, 陰痛, 陰下痒濕, 風虛勞)
『金匱方』	처방 : 血痺虛勞病脈證并治
『肘後方』	처방 : 治虛損羸瘦不堪勞動方
『千金方』	처방 : 筋極, 風虛雜補酒煎, 脈極, 肉極, 氣極, 精極, 骨極, 補腎, 雜補
『千金翼方』	처방 : 補五臟, 五藏氣虛, 補虛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세기 이전에는 허로의 치료에 있어서 주로 오장을 보하는 방법으로, 五藏氣虛, 補虛 등 주로 虛한 것을 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손사막의 『천금방』이 임상이나 처방면에서 전대에 비해 질적, 양적인 발전을 보였으나, 이론적인 면에서는 『내경』과 『금계요략』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sup>10)</sup>는 주장과 부합하며, 허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질병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10세기의 인식

10세기의 허로에 대한 인식은 『성혜방』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五勞, 六極, 七傷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오로, 육극, 칠상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虛勞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군에 대한 설명과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허로를 바탕으로 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증상을 나열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허로에 대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수의 환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문에서는 보기 힘든 것으로 허로의 치료 방법으로 다

수의 환약을 제시한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표 3. 10세기 간행 서적의 허로분류

『聖惠方』	의론 : 補益方序
	처방 : 五勞(肝勞, 心勞, 脾勞, 肺勞, 腎勞), 六極(筋極, 脈極, 肉極, 氣極, 骨極, 精極), 七傷, 虛損補益, 風勞, 偏枯, 急勞, 骨熱, 口舌乾燥, 渴, 吐血, 欬嗽, 裏急, 心熱不得睡, 不足, 羸瘦, 痰飲, 脾胃虛冷食不消, 不思食, 心腹痛, 積聚, 癥瘕, 驚悸, 兼痢, 冷勞, 氣勞, 嘔逆, 唾稠黏, 心腹痞滿, 身體疼痛, 寒熱, 盜汗, 煩熱, 大便難, 小便不利, 小便數, 小便白濁, 小便出血, 小便餘瀝, 小便淋澁, 手足煩疼, 痿痺不遂, 筋脈拘攣, 少氣, 上氣, 目暗, 耳聾, 浮腫, 腰脚疼痛, 膝冷, 四肢逆冷, 夢與鬼交, 夢泄, 陰痿, 失精, 尿精, 少精, 陰腫, 陰瘡. 補益方序(朱砂丸, 鍾乳丸, 雄黃丸, 硫黃丸, 雲母丸, 磁石丸, 眞珠丸, 白石英丸, 礪砂丸, 肉蓯蓉丸, 天雄丸, 覆盆子丸, 枸杞子丸, 石斛丸, 卷柏丸, 菴子丸, 補骨脂丸, 萆薢丸, 薯蕷丸, 楮實丸, 臘胸臍丸, 松脂丸, 萹芩丸, 澤瀉丸, 巴戟丸, 黃芪丸, 厚朴丸, 茴香子丸, 十香丸, 七香丸, 椒紅丸, 沈香丸, 大黃丸, 葫蘆巴丸, 萹澄茄丸, 何首烏丸, 安息香丸, 蟬螂丸, 雀附丸, 附子丸, 腎附丸, 鹿茸丸, 藥茸丸, 藥角丸, 藥骨丸, 地黃丸, 地黃煎丸, 阿魏丸, 木瓜丸, 烏頭丸, 青硫丸, 調氣木香丸, 檳榔丸, 牽牛子丸, 大麻仁丸)
	식치 : 食治五勞七傷, 食治虛損羸瘦, 補益虛損於諸肉中蒸煮石英及取汁作食治法

이상에서 본 『태평성혜방』의 질병분류방식은 『제병원후론』의 양식을 이어받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허로에 대한 내용이 300년 전의 『제병원후론』보다는 완성된 형태로 진화했으며, 이러한 질병분류방식은 그대로 후대 의학서에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항목의 변화가 있었고, 중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처리하는 방식은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또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이를 통하여 송정부의 주도적인 의학 장려 정책이 질병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3) 11세기의 인식

11세기는 국가 표준 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혜민화제국방』의 출현으로 모든 임상 각가의 처방이 표준화 되었

10) 최은정,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唐, 千金方に記載된 中風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96;17(2):129.

11) 차웅석, 김남일, 안상우, 김동윤. 「중국 주요 국가간행의학서의 편제구성과 질병분류인식에 대한 소고」. 한국의사학회지. 2017;30(2):8.

는데, 허로도 예외는 아니며 여기서는 허손을 보하는 대표적인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和劑局方』에서는 ‘諸虛不足’이라는 제목 하에 虛를 補하는 腦朮臍丸, 菟絲子丸 등 36개의 처방 설명하고 있으며, ‘補虛損’이라는 제목 하에 虛不足을 보해주는 十全大補湯, 黃芪鱉甲散 등 25개의 처방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제국방』의 약재구성은 宋代에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빈민층이 증가하고, 북방 이민족과의 경쟁을 위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의 악화, 그리고 서기 1000년에 시작된 제3차 한랭기가 200년 이상 지속된 기후적 영향 등을 받았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sup>12)</sup>

이는 금원사대가의 출현배경이 되는 『화제국방』의 부작용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런류의 많은 처방이 허손을 보하는 처방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

표 4. 11세기 간행 서적의 허로분류

『和劑局方』	처방 : 諸虛不足, 補虛損
『和劑指南』	의론 : 論諸虛證候

이를 통하여 송정부가 지식인들로 하여금 의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고 의학교육 제도를 개선했으며, 1057년에는 교정의서국을 세워 의서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지방의 미신적인 풍습을 제거하고 선진의학을 보급했으며, 『太平成惠方』, 『太平惠民和劑局方』, 『聖濟總錄』 등을 발간하여 허약한 백성들을 돌보고 평범한 의사가 제멋대로 처방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그 결과 北宋은 의학이 융성할 수 있었으며, 당시 性理學과 運氣學의 발전에 힘입어 儒醫들이 출현하여 의학이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sup>13)</sup>는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11세기의 허로에 대한 인식은 ‘규격화 속에서의 다양성을 찾은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 4) 12세기의 인식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醫方類聚·諸虛門』에는 다양한 12세기의 서적들이 인용되어 있다. 대표적 서적인 『삼인방』에서는 虛勞와 痿證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에 덧붙여 전자를 ‘虛損’이라 하고, 후

자를 ‘勞瘵’ 또는 ‘傳尸勞’라고 하였다.

『삼인방』에서는 五勞와 六極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五勞證治’에서는 五勞라는 것이 五神이 편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각각의 정신작용의 심함에 따라 肝勞, 心勞, 脾勞, 肺勞, 腎勞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4)</sup> 또한, ‘六極證治’에서는 筋極, 脈極, 肉極, 氣極, 精極, 骨極 등 육극에 대한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五痿를 허로의 범주에 포함시켜 虛損과 함께 서술하고 있는데, ‘五痿敍論’에서는 내장의 정혈허손이 皮, 血, 筋骨, 肌肉 등을 痿弱하게 하여 痿躄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고, ‘五痿證例’에서는 脈痿, 筋痿, 皮痿, 肉痿, 骨痿 등 五痿를 설명하고 있으며, ‘虛損證治’에서는 피모에서 근골에 이르는 허손을 맥의 얇고 깊음의 차로 변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5. 12세기 간행 서적의 허로분류

『三因方』	의론 : 五痿敍論, 五痿證例, 虛損證治
	처방 : 五勞證治, 六極證治, 五痿治法, 虛損證治
『神巧萬全方』	의론 : 六極總論
	처방 : 五勞, 七傷, 六極, 虛勞諸雜候方論, 虛勞諸雜方, 急熱勞方論
『瑣碎錄』	의론 : 諸勞
『宣明論』	의론 : 補養寒論
	처방 : 勞門類, 補養門類
『聖濟總錄』	의론 : 補益統論
	처방 : 平補, 峻補, 補虛益氣, 補虛益精髓, 補虛固精, 補壯元陽

『신교만전방』의 ‘六極總論’에서는 六極을 분류하고 있는데, ‘筋極主肝, 脈極主心, 肉極主脾, 氣極主肺, 骨極主腎, 精極主藏腑’으로 육극을 각각 오장에 배속시키고 있다.

『쇄쇄록』의 허로에 관한 인식은 독특하다. 여기서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허로의 원인으로 여겨 서술하면서 그에 따른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諸勞’에서 五勞에 志勞, 思勞, 心勞, 憂勞, 瘦勞 등이 있으며, 定志丸, 鎮心丹 등의 처방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宣明論』의 ‘補養寒論’에서는 寒으로 인한 증상의 발생기전과 치법을 설명하고, ‘勞門類’에서는 白朮黃芪散, 人參白朮湯 등 10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으며, ‘補養門類’에서는 防風當歸飲子, 雙芝丸 등 19개의 처방 설명하고 있다.

『聖濟總錄』의 ‘補益統論’에서는 다섯가지 損의 증상과 치

12)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강좌중국의학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170.

13) 김기욱, 박현국, 김제철. 『兩宋時期的 醫政史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3):65-99

14) 五勞者, 皆用意施爲, 過傷五臟, 使五神不寧而爲病, 故曰五勞. 以其盡力謀慮則肝勞; 曲運神機則心勞; 意外致思則脾勞; 預事而憂則肺勞; 矜持志節則腎勞.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醫方類聚 7』.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355.)

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黃帝難經』을 인용하여<sup>15)</sup> 皮毛, 血脈, 肌肉, 筋, 骨 등의 손상과 그것들에 대한 처방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平補, 峻補, 補虛益氣, 補虛益精髓, 補虛固精, 補壯元陽 등 다양한 허로치법과 그에 따른 처방을 나열하고 있다.

12세기는 송나라에서 금, 원나라로 교체되는 시기로 송의 문화 융성의 영향을 받아 당시 많은 의학적 출판물이 등장하는 혜택을 많이 본 시기였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편찬한 의방서 등에서 다양한 병증을 수집 정리함에 따라 허로에 대한 인식도 이전의 의학지식을 집적함에 따라 더욱더 다양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허로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 12세기의 허로에 관한 인식 중 독특한 것은 『쇄쇄록』 등에 실린 인식인데, 여기서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허로의 원인으로 삼아 분류하면서 그에 따른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유의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의학이 유심론적 경향을 띠게 되는데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 5) 13세기의 인식

『醫方類聚·諸虛門』에 인용된 13세기의 서적들 또한 상당히 다양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사대가 이외에도 다양한 의가들이 등장하여 허로에 관한 많은 서술들을 하고 있다.

『直指方』의 ‘虛勞方論’에서는 五勞, 六極, 七傷의 원인, 증상, 처방을 설명하고, ‘又論’에서는 노권의 증상과 처방 및 약재를 소개하고 있으며, ‘虛勞證治’에서는 十補湯, 地骨皮散 등 22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주씨집험방』의 ‘虛損評’에서는 허손의 증상과 사용 가능한 치료 약재를 소개하고, ‘虛損’에서는 既濟固眞丹, 聚寶養氣丹 등 54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엄씨제생방』의 ‘五勞六極論治’에서는 五勞와 六極의 원인, 증상, 처방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虛損論治’에서는 허손의 원인, 증상, 처방을 서술하였으며, ‘五勞六極’에서는 羚羊角散, 續斷湯 등 21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虛損’에서는 大建中湯, 芡實丸 등 8개의 처방을 설명하였다.

『엄씨제생속방』의 ‘補益評治’에서는 허손 치료법의 주의점을 서술하고, ‘補益’에서는 天地煎, 雙補丸 등 10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표 6. 13세기 간행 서적의 허로분류

『助道方』	처방 : 治老人下部痿弱病, 治勞心膽冷病, 治虛勞寒熱病
『是齋醫方』	처방 : 虛勞(平補)
『簡易方』	의론 : 勞傷 처방 : 輔陽(丸丹), 服餌法, 羨補, 通治
『斷病提綱』	의론 : 虛勞歌
『直指方』	의론 : 虛勞方論, 又論 처방 : 虛勞證治
『朱氏集驗方』	의론 : 虛損評 처방 : 虛損
『嚴氏濟生方』	의론 : 五勞六極論治, 虛損論治 처방 : 五勞六極, 虛損
『嚴氏濟生續方』	의론 : 補益評治 처방 : 補益
『管見大全良方』	의론 : 諸虛方論, 平補腎氣證, 腎氣損甚兼調脾胃證治, 虛勞發熱咳嗽吐紅證治, 諸虛勞倦證治, 虛勞用藥說, 戒服丹說 처방 : 諸虛
『修月魯般經後錄』	처방 : 葛可久先生勞證十藥神書
『儒門事親』	의론 : 推原補法利害非輕說, 補論
『十形三療』	의론 : 虛勞
『治法雜論』	의론 : 論火熱
『治病百法』	처방 : 虛積
『御藥院方』	처방 : 補虛損
『澹寮方』	의론 : 勞傷, 補益 처방 : 勞傷, 虛損, 補益, 丹劑
『衛生寶鑑』	의론 : 肺痿辨 처방 : 勞倦所傷虛中有寒, 溫中益氣治驗, 勞倦所傷虛中有熱, 虛中有熱治驗

『관견대전양방』의 ‘諸虛方論’에서는 간, 심, 비, 폐, 신, 기혈, 신형 등의 허증 증상과 치료 약재를 설명하고, ‘平補腎氣證’에서는 신기를 平補하는 약으로 五補丸, 安腎丸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으며, ‘腎氣損甚兼調脾胃證治’에서는 신기 허손이 심하면 鹿茸大補湯 등을 사용하고, 비신이 함께 허하면 腦膈臍丸 등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虛勞發熱咳嗽吐紅證治’에서는 허로발열과 기침하면서 피가 나오는 증상에 사용하는 처방을 소개하고, ‘諸虛勞倦證治’에서는 虛勞倦의 증상과 劫勞散 등의 처방 소개하고 있으며, ‘虛勞用藥說’에서는 허로병의 발생과정과 사용약재를 서술하고, ‘戒服丹說’에서는 丹에 대한 설명 및 증상에 따른 약치료를 서술하였으며, ‘諸虛’에서는 四七湯, 大建中湯 등 2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유문사친』의 구성서적 중의 하나인 『십형삼료』의 ‘虛勞’

15) 一損, 損於皮毛, 皮聚而毛落; 二損, 損於血脈, 血脈虛少, 不能榮於五藏六府; 三損, 損於肌肉, 肌肉消瘦, 飲食不爲肌膚; 四損, 損於筋, 筋緩不能自收持; 五損, 損於骨, 骨痿不能起於牀. 此損之爲病也.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醫方類聚』 7.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199.)

에서는 허로병 환자의 의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치병백법』의 ‘虛積’에서는 병이 오래되어 虛積無力해지면 無比山藥丸으로 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답료방』의 ‘勞傷’에서는 五勞, 六極, 七傷의 증상과 처방을 서술하고, ‘補益’에서는 脾, 腎 등의 허손에 따른 처방과 방제를 서술하였으며, ‘勞傷’에서는 十全大補湯, 冷湯 등 4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虛損’에서는 坎離丹, 三匱丹 등 3개의 처방을 설명하며, ‘補益’에서는 五精丸, 鹿茸丸 등 9개의 처방을 설명하였고, ‘丹劑’에서는 伏火震靈丹, 靈砂丹 등 7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답료방』의 허로에 대한 인식 또한 독특한데 기본적으로 오로, 육극, 칠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 중에 칠상은 오장의 손상에 形과 志의 손상을 더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6)</sup>

『위생보감』의 ‘肺痿辨’에서는 肺痿 환자의 증상과 치료과정에 대한 醫案을 서술하고, ‘勞倦所傷虛中有寒’에서는 理中丸, 建中湯 등 18개의 처방을 설명하였으며, ‘溫中益氣治驗’에서는 內傷自利를 치료한 의안 및 參朮調中湯 등의 처방을 설명하고, ‘勞倦所傷虛中有熱’에서는 맥에 따른 허로 진단과 분류 및 續斷湯, 柴胡散 등 15개의 처방을 설명하였으며, ‘虛中有熱治驗’에서는 허로병에 열이 있을 때의 뜸과 약 치료법 및 주의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위생보감』의 저자인 나천익은 태의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에 바탕하여 고관대작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내상병에 관심이 많았는데,<sup>17)</sup> 허로병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의가들의 서술과 달리 장종정은 그의 저서 『儒門事親』에서 허로의 처방인 보법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보법의 해로움이 가뻐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문사친』의 ‘推原補法利害非輕說’에서 보법의 해로움이 가뻐지 않음을 역설하고, 보법의 6가지 분류와 막히지 않고 잘 흐를 수 있도록 사기를 치는 치료법을 강조하였으며, ‘補論’에서는 보하는 치료의 개괄을 표현하였다.

13세기의 허로에 대한 인식 또한 이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오로, 육극, 칠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증상에 대한 설명과 처방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학이론의 전개와 함께 많은 의가들이 허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시기가 중국의학사상 가장 연구가 활발하면서도 많은 의가들이 학과를 만들어 활약하였던 금원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의학의 발전에 시대적 혼란상,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기후환경변화가 외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sup>18)</sup>

## 6) 14세기의 인식

『醫方類聚·諸虛門』에는 14세기의 서적들도 다양하게 인용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의가들의 허로에 관한 많은 서술을 볼 수 있다.

표 7. 14세기 간행 서적의 허로분류

『拔粹方』	의론 : 虛損證 처방 : 損其腎者益其精, 虛損證
『瑞竹堂方』	처방 : 羨補
『醫方大成』	의론 : 諸虛 처방 : 諸虛
『醫方集成』	처방 : 諸虛
『得效方』	처방 : 虛損, 五痿
『永類鈴方』	의론 : 雜病五勞六極, 虛損
『南北經驗方』	처방 : 諸虛
『袖珍方』	처방 : 諸虛
『經驗祕方』	처방 : 諸虛
『經驗良方』	처방 : 虛損
『煙霞聖效方』	처방 : 補益
『施圓端效方』	의론 : 諸虛勞損 처방 : 諸虛勞損
『玉機微義』	의론 : 痿證(諸痿因肺熱相傳, 痿因內藏不足所致, 痿因血少, 治痿與治痺不同, 治痿大法), 虛損(脈法, 虛損脈證, 論虛爲陰氣不足, 論虛爲勞倦所傷, 論虛證爲痿, 論虛證發熱, 論虛證惡寒, 論虛證爲瀉痢, 論虛證似中風, 論虛爲頭痛頭眩, 論虛證夾痰有似邪祟, 論原氣陷下因虛所致, 論精氣奪則虛, 論形氣不足有餘用補瀉法, 論無病好補之誤, 論局方用諸熱藥補虛之失) 처방 : 痿(雜方, 附虛寒溫經諸方), 虛損(調理之劑, 補氣之劑, 補血之劑, 補氣血之劑, 補虛損壯筋骨之劑)

『발수방』의 ‘虛損證’에서는 허손병의 개괄, 처방 및 장부별 損의 증상을 서술하고, ‘損其腎者益其精’에서는 補益腎肝

16) 醫家謂有七傷者, 一曰大怒, 逆氣傷肝, 二曰憂愁思慮傷心, 三曰飲食太飽傷脾, 四曰形寒飲冷傷肺, 五曰久坐濕地傷腎, 六曰風雨寒濕傷形, 七曰大怒恐懼傷志.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醫方類聚 7』,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197.)

17) 陳大舜, 曾勇, 黃政德. 『각가학설』. 서울:대성의학사. 2001:184.

18) 김지수, 정지훈, 박해모. 『宋元시대 기후환경변화가 질병과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18;31(2):60.

丸, 水芝丸 등 7개의 처방을 설명하며, ‘虛損證’에서는 人參黃芪湯, 益氣丸 등 9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발수방』의 인식은 허로를 상하로 나누어 인체의 장부를 분류하여 그에 따른 허손증을 인식하고 있다. 폐, 심, 위를 상손에 신, 간, 비를 하손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또 심폐, 간신, 비위로 따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sup>19)</sup>

『의방대성』의 ‘諸虛’에서는 虛, 勞極의 증상 및 처방을 설명하고, 처방 부분의 ‘諸虛’에서는 四柱散, 黑錫丹 등 15개의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영류검방』의 ‘雜病五勞六極’에서는 五勞, 六極 증상 및 처방을 설명하고, ‘虛損’에서는 허손병의 개괄 및 장부병에 따라서 參香散, 蓮心散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옥기미의』에서는 痿證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諸痿因肺熱相傳’에서는 폐열로 폐엽이 타고 오장으로 인해 痿躄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고, ‘痿因內藏不足所致’에서는 內藏精血이 허손되고 皮血筋骨肉이 무력해지면 痿躄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痿因血少’에서는 血少로 인한 痿病의 발전 기전의 설명하고, ‘治痿與治痺不同’에서는 痿는 肺熱, 痺는 風寒濕이 원인으로 그 치료가 다르다고 서술하고 있다.

‘治痿大法’에서는 위병의 증상에 따른 원인, 진단과 처방을 서술하고, ‘虛損脈法’에서는 허증의 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虛損脈證’에서는 허손맥의 설명 및 5가지 損의 증상과 장부별 損의 처방을 서술하고, ‘論虛爲陰氣不足’에서는 陽有餘 陰不足하므로 허하면 음이 부족해진다고 서술하고 있고, ‘論虛爲勞倦所傷’에서는 陰虛로 내열이 생기는 증상의 설명과 허손의 다양한 원인과 노권부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論虛證爲痿’에서는 허증으로 인한 다양하고도 전신적인 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痿의 雜方’에서는痿를 치료하는 淸燥湯, 健步丸 등 3개의 처방을 소개하고, ‘附虛寒溫經諸方’에서는 虛冷 등을 치료하는 補肝散, 茯神湯 등 10개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虛損’에서는 調理之劑로 桂枝加龍骨牡蠣湯, 小建中湯 등 9개의 처방을, 補氣之劑로 芩附湯, 參附湯 등 5개의 처방을, 補血之劑로 四物湯, 當歸補血湯 등 4개의 처방을, 補氣血之劑로 十全大補湯, 十四味建中湯 등 6개의 처방을, 補虛損壯筋骨之劑로 八味丸, 安腎丸 등 6개의 처방을 서술하고 있다.

14세기 또한 이전과 다르지 않은 인식의 범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중 『발수방』의 허로분류방법과 『옥기미의』의 위증에 대한 언급은 이채롭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발수방』에서는 허로를 상하로 나누어 인체의 장부를 분류하여 그에 따른 허손증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옥기미의』에서는 痿證을 허로의 범주에 넣어 취급함으로써 허로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류에 있어서도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7) 15세기의 인식

『醫方類聚·諸虛門』에 인용된 15세기의 서적들은 많지 않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권 되지 않는데, 이는 이 시기가 『의방유취』의 제작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표 8. 15세기 간행 서적의 허로분류

『壽域神方』	처방 : 虛損部
『衛生易簡方』	처방 : 虛勞

『수역신방』의 ‘虛損部’에서는 허손을 치료하는 解結提金散, 牛髓膏 등의 처방을 서술하고 있다.

『위생이간방』의 ‘虛勞’에서는 五勞七傷, 허로 등을 치료하는 약재, 주의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15세기의 서적은 『의방유취』가 발간되기 직전에 간행된 서적들로 이전과 다르지 않은 인식의 범주를 보이고 있으며, 허손을 치료하는 다양한 처방들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다.

## Ⅲ. 결론

『醫方類聚·諸虛門』에 나오는 의서들을 시대순으로 분석함으로써 7세기 이전부터 15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의 허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醫方類聚·諸虛門』은 제 143권부터 제 154권까지 12권으로 총 12개의 장이며, 허로의 종류부터 질병의 양상, 치료처방, 침구법, 금기, 도인법, 식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自上而損者, 一損於肺, 故皮聚而毛落; 二損於心, 故血脈虛弱, 不能榮於臟腑, 婦人則月水不通; 三損於胃, 故飲食不爲肌膚也, 自下而損者, 一損於腎, 故骨痿不能起於床; 二損於肝, 故筋緩不能自收持; 三損於脾, 故飲食不能消剋也, 故心肺損則色弊, 肝腎損則形痿, 脾胃損則穀不化也.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醫方類聚』 7.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199-200.)



『醫方類聚·諸虛門』의 구성을 살펴보면 허로, 허손, 노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로라는 증상이 사람이 질병을 앓으면서 지쳐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허로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초보적인 분류, 즉 筋極, 脈極, 肉極, 氣極, 精極, 骨極 등 오장과 배속되는 인체의 구성요소의 쇠퇴로 허로를 분류하고 그에 대한 치료처방을 제시하였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편찬한 의방서 등을 통하여 의학지식을 집적함에 따라 허로에 대한 인식도 이전보다 진전되어 오로, 육극, 칠상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상세하게 분류하며, 허로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군에 대한 설명과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금원사대가를 비롯한 많은 유익들의 등장은 허로의 원인을 근, 맥, 육, 기, 골 등 인체구성요소의 손상으로부터 사람의 정지의 손상 등 내면의 문제로 인식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의방유취』 발간 직전에는 허로에 대한 분류 방식이 더욱 다양해 졌으며, 허로라는 질병의 범주에 痿證 등 다양한 병증을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醫方類聚·諸虛門』이 『東醫寶鑑』 「雜病編」의 虛勞門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허로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4. 정지훈, 한봉재, 김동윤. 「『醫方類聚』의 導引圖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41-50.
5. 정지훈. 「『醫方類聚·五臟門』의 처방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8;31(1):105-122.
6.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1-80.
7. 浙江省中醫研究所. 『醫方類聚 1』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5.
8. 최은정,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唐, 千金方に 記載된 中風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96;17(2):117-132.
9. 차웅석, 김남일, 안상우, 김동윤. 「중국 주요 국가간행의 학서의 편제구성과 질병분류인식에 대한 소고」. 한국의사학회지. 2017;30(2):1-12.
10.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강좌중국의학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170.
11. 김기욱, 박현국, 김재철. 「兩宋時期的 醫政史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3):65-99.
12. 陳大舜, 曾勇, 黃政德. 『各家學說』. 서울:대성의학사. 2001:184.
13. 김지수, 정지훈, 박해모. 「宋元시대 기후환경변화가 질병과 의학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18;31(2):53-62.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1. 강연석, 이상섭, 박희수, 이서영. 「『醫方類聚·癩癩門』을 통해 본 한의학에서 癩疾의 역사」.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1):111-117.
2. 안상우, 김남일. 「『醫方類聚』總論의 體制와 引用方式 分析」.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22(1):85-106.
3. 안상우. 「『東醫寶鑑』의 ‘類聚’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59-72.